



광주극단 푸른연극마을의 '노인과 바다'.



/씨어터 연바람 제공 구미극단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타이피스트'./씨어터 연바람 제공

7개 극단 개성 갖춘 공연 광주 소극장서 펼쳐진다

내달 1~7일 '소극장열전' 개최 서울·구미·춘천 등 소극단 참여 시민 대상 관람단 서포터즈 모집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전국 7개 지역 극단의 개성이 담긴 연극 공연 관람을 통해 웃음과 재미를 만끽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2 대한민국소극장열전 IN 광주'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광주 지역 소극장 씨어터 연바람과 예술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소극장열전 in 광주는 소극장을 중심으로 연극인들의 교류 확대, 예술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2022 대한민국소극장열전 in 광주'는 '월화수목금토일 여가, 연극이 있다'를 모토로 푸른 연극마을 (광주),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구미), 극단 도모 (춘천), 공연에

술창작집단 어니언킹(부산), 한울림(대구), 빈칸(전주), 공상집단 뽕뽕지(서울) 등 전국 7개의 극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세미나, 토론회 등의 부대 행사를 통해 지역 소극장 활성화와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공연 첫날인 1일 오후 7시 30분 씨어터 연바람에서 광주푸른연극마을 '노인과 바다' 막을 올린다. 헤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연극적 상상력으로 구현했다. 총 3인극으로 제작된 본 작품은 원작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연극이기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감동을 소극장에서 느낄 수 있다.

2일 구미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타이피스트'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통에서 선보인다. 머레이 쉬스갈의 명작 2인극 타이피스트는 폴과 실비아라는 타이피스트로 취직한 두 남녀의 40년간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도시민들의 꿈과 희망,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연극이다.

셋째 날인 3일 오후 7시 30분 춘천 극단 도모

의 '가정식 백만 맛있게 먹는 밥' 공연이 펼쳐진다. 백과사전을 파는 영업사원 속회는 어느 날 만화가 미진의 집에 찾아오게 되고, 미진은 속회에게 식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속회만이 몰랐던 미진과의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한다.

이어 4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통에서 부산극단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해안도로'가 5일 오후 7시 30분 씨어터 연바람에서 대구극단 한울림 '못생긴 남자', 6일 오후 5시 예술극장 통에서 전주극단 빈칸의 '카모마일과 비빔면'의 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5시 씨어터 연바람에서 서울극단의 '후산부, 동구씨'의 특별공연이 열린다. 후산부 동구씨는 88년도 충청도 광주 희락탄광의 붕괴사고의 실화사건을 기반했다.

티켓은 인터파크티켓과 플레이광주, 씨어터 연바람 네이버 블로그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사이트 검색 창에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광주'를 검색하면 된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관람단 서포터즈를 선착순 10명이다. 서포터즈에 선발이 되면 일주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또 작품상과 연기상, 인기상을 투표할 수 있는 심사권도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씨어터 연바람(062-226-2446)으로 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광주문화재단, KIA 홈경기 공연 펼친다

오늘 퓨전 장구 응원가

광주문화재단이 KIA 타이거즈 홈경기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공연을 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6일부터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있는 28일까지 3일간 본 경기에 앞서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야구팬들에게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에게는 관중 앞에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광주문화재단과 KIA 타이거즈 공동 협력 기획이다.

지난 해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월 1~2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시민과 문화예술단체의 호응을 얻어 올해는 홈경기가 있는 기간에 월 3~4회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7월 마지막 홈경기가 있는 28일 공연은 '심

미경한마당 승승장구팀'의 퓨전 장구무대다. '아리랑목동', '짚이야' 등 힘찬 울림이 느껴지는 KIA 응원가를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8~9월에도 문화 예술공연은 계속된다. 8월 16~18일 SSG전, 18~19일 NC전, 9월 13~14일 키움전, 15~16일 한화전에도 다채로운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야외공연 특성상 우선 시 공연은 취소된다.

/이나라 기자

김성수의 '이달의 핫클래식'



에프게니 키신 : 잘츠부르크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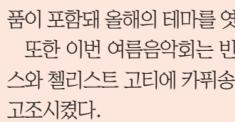
키신의 2021년 여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리사이틀 실황이 음반으로 발매됐다.

전반부는 베르크 소나타, 크레니코프의 5개의 소품과 거슈윈의 전주곡 등을 통해 20세기 음악의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후반부는 쇼팽 '녹턴' op.62-1, '즉흥곡 1-3번', '스케르초' 1번, '폴로네이즈' op.53 등 40 여분을 쇼팽으로 채운다. 또 멘델스존 '무언가' op.38-6, 자작곡, 쇼팽 '스케르초 2번', 드뷔시 '달빛'을 앙코르로 마무리된다. 공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난 평생의 스승 안나 파블로브나 칸토르에게 바치는 헌정의 의미를 담았기에 남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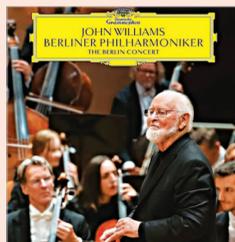
2022 빈 필하모닉 여름음악회

비엔나 쉐브른 궁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한여름 밤의 콘서트의 실황이다. '유럽 공통의 음악 유산'이라는 테마로 열린 음악회는 유럽 각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속에서 발전해 온 각 나라의 다양한 음악을 즐겨보는 시간으로 베토벤에서 에네스크까지 다채로운 곡들로 채워졌다. 넬슨스의 고국 라트비아의 작곡가 마스카츠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약한 우크라이나의 작곡가 리센코의 작품이 포함돼 올해의 테마를 엿볼 수 있는 선곡이 인상적이다.



오보에를 위한 낭만적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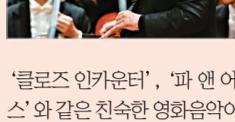
프랑스의 젊은 오보이스트, 가브리엘 피두가 연주하는 오보에를 위한 낭만 작품집.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음악상 '빅투아르 드 라 뒤지크'에서 2020년 올해의 기악 독주자상을 수상한 가브리엘 피두는 음악가문 출신으로 트리오 반다리의 첼리스트 프라델 피두의 아들이다. 그의 첫 독집 앨범은 슈만과 클라라의 로망스를 중심으로 레오폴드 말너의 '낭만풍의 3개의 소품', 마리아 드라니슈니코바의 '시곡', 그리고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담았다. 최초로 녹음된 말너의 작품도 잊기에는 아까운 아름다운 작품이다. 멜로디라인을 매력적으로 부각시킨 피두의 빼어난 연주는 전곡에 걸쳐 빛난다.



존 윌리엄스 : 베를린 필하모닉

존 윌리엄스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역사적 공연 실황의 블루레이 영상물이 발매 된다.

이미 CD와 블루레이 디스크를 합본한 특별 한정판으로 만날 수 있었던 블루레이 반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블루레이 비디오 디스크와 고음질 블루레이 오디오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림픽 팡파레'를 시작으로, '클로즈 인카운터', '파 앤 어웨이', '해리포터', '쥬라기 공원', '슈퍼맨',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친숙한 영화음악이 이어지고, 후반부에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통해 장대한 판타지를 보여준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